

결혼의 질과 지속의사에 관련된 혼전 변인들

홍 대 식
성신여자대학교

결혼의 질을 예측하는 Holman(2001)의 모형에 대한 수정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427 쌍(854명)의 부부들이 연구에 참가했다. 회고적 방법에 의해 원가족, 개인특징, 사회관계망 및 상호작용과정의 변인들이 측정되었고, 현재의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가 측정되었다. 특히, 조화성과 같은 상호작용과정의 다양한 변인들이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원모형보다 본연구의 모형이 적절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여자들이 남성들보다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정했고, 혼전관계의 만족과 지속의사 그리고 결혼만족과 지속의사에서도 더 부정적으로 평정했다. 또한 대부분의 원가족, 개인특징, 사회관계망의 변인들 그리고 혼전관계의 일반적 가까움과 혼전의 갈등들을 제외한 여러 상호작용과정 변인들이 결혼만족과 지속의사와 상관이 유의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일반적으로 결혼 만족보다 지속의사에 대해 더 낮은 상관을 보였다. 상호작용과정변인에 대한 장차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결혼 질, 결혼 만족, 결혼 몰입, 혼전변인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에 관련 없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가? 더욱 특수하게,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혼전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장차 결혼할 사람들, 곧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 결혼생활 중인 많은 사람들과 아울러 결혼문제나 가정문제에 관련 있는 실무자들(예; 가정복지관련 기관의 종사자들, 이혼 법률가들과 전문가들(가정학자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등)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최근에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가시킨

사회적 요인은 많은 서구 국가들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과 이것에 수반된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 문제들이다.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 최근의 이혼율은 거의 모든 초혼의 약 50%, 그리고 재혼의 60%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혼의 ⅔가 결혼 후 10년 동안에 일어나며, 그 결혼 기간의 중앙치가 7년이라는 것을 나타냈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988; Larsen & Olson, 1989에서 재인용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결혼자수에 비한 이혼자수의 비율(즉, 이혼율)이 1980년 5.8%, 1985년 10.3%, 1990년 11.3%, 1995년 16.6% 및 1998년 32.1%로서(이중한과

홍대식은 성신여자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음.

이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의 자료분석에 큰 도움을 준 박근석 및 박희량 박사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교신저자 : 홍대식, (136-742)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920-7134,

E-mail : dshong@cc.sungshin.ac.kr

이윤희, 2000), 1990년대 후반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 최근인 2002년에는 약 14만 5000쌍이 이혼해서 이혼율은 47.4%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3). 이제, 우리나라는 “이혼 선진국”의 대열에서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나 결혼해체의 이유에 대한 일반 사람들과 관련 행정가들, 정치가들 및 전문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혼과 결혼해체에 대한 많은 관심과는 반대로, 결혼 당사자들과 부모들은 결혼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의 주된 기초로서 여전히 개인적 경험과 상식이나, 심지어 점을 치거나 궁합을 알아보는 것과 같은 미신적 방법들에 의지하고 있다.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은 가족에 관련된 가족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여러 전문분야의 주요 관심 주제가 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이론을 내놓아 왔다.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은 결혼하게 될 남녀쌍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원가족적(family of origin) 및 두 파트너의 상호작용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파트너들의 상호작용과정 요인의 측면에서 결혼 전과 후의 관련 변인들에 주된 관심이 두어지고 있다.

결혼생활의 시간적 과정의 측면에서, 결혼 후보다 전의 여러 요인들에 특별한 관심이 두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결혼 전에 파트너들의 장차의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결혼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혼전의 여러 변인들(배우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배경특징들, 개인 특징들 및 상호작용과정들)이 결혼 결과들(만족, 행복, 결혼 지속이나 이혼)에 대한 관련성이나 영향에 관한 이해는 아직도 매우 한정된 실정이다(Cate & Lloyd, 1992; Whyte, 1990).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적 목적은 혼전 변인들이 결혼 결과들, 즉 결혼 만족과 안정성(특히, 결혼 지속의사)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혼전변인들을 가급적 최대한 다룰 수 있는 모형들을 검토하고 발전시키고, 여러 혼전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몇 개의 새로운 혼전변인들(예; 혼전관계의 만족도, 조화성)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전 연구들과 이론들의 요약적 고찰

가족과학분야에서, 혼전변인들로부터 결혼의 질과 안정성을 예측하려는 노력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들은 1940년대 경부터 중요한 연구들의 관심을 받았다(예; Adams, 1939; Terman & Oden, 1947). 그 이후에,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에 이 분야의 이론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혼전 예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혼전과 혼후의 남녀쌍이나 부부관계의 강화와 이혼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이 주제에 관한 문헌들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제시되었다(Cate & Lloyd, 1992; Larson과 Holman, 1994; Wamboldt와 Reiss, 1989; 더 최근에는, Holman, 2001).

이 분야에서 결혼 결과들에 관련된 혼전변인들은 가족배경변인들, 개인특징들, 남녀 쌍의 상호작용과정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왔으며, 최근에 사회관계망들을 포함한 사회적 맥락들(Holman, 2001)과 스트레스(Karney와 Bradbury, 1995)의 변인들이 추가되고 있다.

가족배경 변인들

결혼질의 혼전 예측변인들에 대한 종단연구들에 대한 평론에서(Wamboldt와 Reiss, 1989) 원가족(즉 부부가 결혼 전에 성장했던 가족)의 경험들이 그 후의 결혼 생활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에서 인용된 종합적 고찰들은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이혼 여부, 갈등의 양, 가정의 일반적 정서분위기,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의 결혼 질과 성인기 자녀의 결혼 결과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의 메타분석(Amato & Keith, 1991)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질에 대해 작지만,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냈다.

부부들의 원가족 경험들의 유사성이 결혼 적응에 정적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Wilcoxon & Hovestadt, 1985). 남편들 자신의 원가족의 지각들이 부부의 결혼만족을 예측했지만, 부인들 자신의 원가족의 지각들은 부부의 결혼만족을 예측하지 못했다(Holman, Larson 및 Harmer, 1994). 그러나 가족갈등의 기억은 남편들보다 아내들의 결혼질을 예측했다(Whyte, 1990).

원가족의 구조적 변인들(예; 성장기 동안의 부모의 결

혼상태)이 개인특징보다 결혼 성공의 예측력에서 더 미약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Bentler & Newcomb, 1978).

원가족변인들은 다른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 결과들(즉, 만족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원가족변인들이 부부관계나 혼전관계에서의 의견일치의 구축과정을 통해 관계만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시사되었다. 또한 원가족변인들이 자녀의 심리적 행복(Amato, 1994; Amato & Keith, 1991), 현재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지각(Holman & Li, 1997) 등의 과정을 통해 자녀의 결혼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개인특징들

개인특징들이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어 왔으며 가장 흔히 연구된 측면들은 성격특징들, 태도들, 신념들 및 가치들이다. 연구들은 몇 개의 혼전의 개인특징들이 결혼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일관성있게 증명해 왔다. 가장 흔히 지적되어 온 개인 특징들은 신경질성(neuroticism), 우울성, 충동성 및 사회성이었으며(Cate & Lloyd, 1992; Larson & Holman, 1994), 성격특징이 더 바람직스러울수록 결혼만족이 더 컸다(Larson & Holman, 1994). 역기능적 신념들이 또한 결혼 결과들에 다소 영향을 주는 것 같았다(Kelly & Conley, 1987; Whyte, 1990).

개인특성들과 다른 혼전변인들의 비교 연구들은 성격변인들이 가족배경변인들보다 결혼성공을 상당히 더 많이 예측한다는 결과들(Bentler와 Newcomb, 1978)과 다른 변인들이 포함되었을 때에 성격특성들이 결혼결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과들(Whyte, 1990)을 보고해서, 다소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혼전의 개인특징들이 결혼 결과들에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영향을 준다는 가정들 이외에도, 개인특징들이 다른 매개변인들을 통해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들이 제시되어 왔다. 성격특징들이 의사소통과 갈등해결과 같은 대인관계과정들(Kelley & Conley, 1987), 관계들을 해석하는 양식과 더 나아가서 관계에 대한 기대들과 상호작용패턴들(Duck, 1993), 그리고 지식구조나 자기도식(Anderson, 1993)을 통해 관계 결과들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되어 왔다.

사회적 맥락

종래에 결혼절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특징들과 상호작용과정 변인들에 초점이 두어져 왔으며 개인과 두 파트너가 포함되고 있는 더 폭넓은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이 무시되어 왔다(Holman, 2001). 그러나 최근에 결혼 결과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및 맥락적 요인들의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예; Duck, 1993).

사회적 맥락변인들에 대한 한 고찰(Larson & Holman, 1994)은 결혼연령, 교육, 수입, 직업, 계층, 인종 및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개인특성들이라기 보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지표변인들이라고 개념화시켰다. 즉 이러한 변인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보다도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사회문화적 명칭들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의 지표변인들 중에서, 결혼연령 만이 차후의 결혼절에 일관성있고 높게 관련되어 있다(Larson & Holman, 1994; Whyte, 1990 참조). 10대의 결혼자들이 20대의 결혼자들보다 결혼 안정성이 상당히 더 낮으며, 20대 중반 이후부터 말까지 안정성의 증가가 보이지 않으므로(Burr, 1973), 결혼연령과 결혼결과들 사이의 관계는 곡선적일 수 있다(Holman, 2001). 혼전의 교육, 수입, 직업 및 인종과 같은 다른 사회문화적 지표변인들이 또한 다소의 예측력이 있지만, 다른 혼전 변인들이 포함되었을 때에 예측력이 없어진다(Whyte, 1990).

사회관계망의 지원이나 지지는 결혼결과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맥락변인이다. 혼전 관계에 대한 가족들과 친구들의 지원은 차후의 결혼절의 한 예측변인으로 오랜 동안 간주되어 왔고 계속 예측력을 갖고 있다(Booth & Johnson, 1988; Cate, Huston, & Nesselroade, 1986; Kurdek, 1991; Sprecher & Helmlee, 1992; Whyte, 1990).

사회적 맥락변인들이 결혼절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들 이외에도, 이것들이 다른 매개변인들을 통해 결혼결과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시사되어 왔다. 예컨대, 가족들과 친구들의 결혼 지지는 결혼준비성에 직접 및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으며(Holman & Li, 1997), 관계 유능감(Klein & Milardo, 1993)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관계 외부에 있는 제삼자들은 관계의 유능성의 평가를 포함한 관계의 준거들, 규범들 또는 평가기준들을

제공하고 강화시켜 줌으로써 관계의 과정들과 결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호작용과정들

혼전의 남녀쌍의 의사소통의 질이 가장 많이 연구된 상호작용과정이지만, 다른 상호작용과정들도 결혼질과 안정성의 예측에서 중요하다. 또한 상호작용의 결과 변인들이며, 상호작용에 대해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동질혼, 대인관계적 유사성 및 상호작용의 내력이 중요하다.

사회적 유사성이나 동질혼은 관계의 정태적인 구조적 질이라고 일반적으로 간주되지만, 이것은 남녀쌍의 상호작용과정의 한 변인인 동시에 한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Holman, 2001). 이전 연구들에 대한 한 고찰(Lewis와 Spanier, 1979)에서 혼전 동질성과 결혼질 사이의 관계를 다소 지지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이후의 연구들도 이러한 관계에 대한 제한된 지지를 보였다(Antil, 1983; Birtchnell & Kennard, 1984; Kurdek, 1991). 또한 혼전의 태도, 가치 및 신념의 유사성이 결혼질에 관련되어 있다(Fower & Olson, 1986; Holman 등, 1994; Larsen & Olson, 1989).

부부의 혼전의 상호작용의 내력의 3가지 측면들 즉 교제기간, 혼전 임신 및 혼전 동거가 결혼질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교제기간이 길수록, 결혼질이 더 좋다. 혼전 임신은 결혼문제의 측정치와 관련이 있지만, 결혼질에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다(Whyte, 1990). 또한, 혼전 동거가 더 낮은 결혼질에 관련이 있다는 문헌고찰이 있다 (Holman, 1994).

경험적 연구들은 혼전의 상호작용과정들이 결혼질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왔다. 몇 개의 종단연구들은 혼전의 의사소통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이 결혼질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였다(Filsinger & Thoma, 1988; Markman, 1979, 1981; Smith, Vivian & O'Leary, 1990). 그러나 선행 종단연구들의 부분적 반복 연구에서 혼전의 의사소통과 결혼질 간의 관계에 대한 한정된 지지만이 발견되었다(Markman 등, 1987). 혼전의 갈등과 결혼 부적응이 여자들에서만 관련있고 남자들에서는 관련없다는 것이 발견되었다(Kelly, Huston & Cate, 1985).

대부분의 예측연구들이 주로 남녀쌍의 의사소통과 같

등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의견 일치나 합의(consensus)를 이루는 과정과 남녀쌍의 정체성의 느낌이 차후의 결혼질에 대해 중요하다고 시사되었다(Wamboldt & Reiss, 1989). 또한 혼전의 회상된 사랑의 느낌이 결혼질과 아울러 결혼문제들에 관련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Whyte, 1990).

결혼 결과들에 관한 이론들과 모형들

결혼에 관한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크게 네 개의 단계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고 지적되었다(Bradbury, 1998). 첫번째 단계는 부부들의 개인적 특징들과 배경요인들을 주로 자기 보고법(또는 질문지법)에 의해 연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회학적 접근이 지배하는 시기이다. 두번째 단계는 행동주의 임상심리학자들에 의한 행동 특징들을 강조하는 단계로서, 행동치료법이 발전된 시기이다. 이 단계는 개인내 변인들, 사고 및 감정의 검토가 배제되었다. 세번째 단계는 행동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측면들, 즉 부부들의 상호작용시의 정서들과 생리적 변화들 관계에 대한 부부들의 설명들과 귀인들 및 대인관계적 사건들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 관심을 둔 시기이다. 네번째 단계는, 결혼불화나 문제의 원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위해 결혼생활의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종단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이 급증하는 단계이다(결혼 이론들의 추세에 관한 또 다른 고찰을 위해, Holman, 2001 참조).

이와 같은 결혼연구의 추세에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결혼에 관한 연구들은 비록 사회교환이론들과 행동주의 이론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어 왔을지라도, 지배적 이론들이 없이 수행되어 왔다. 이것은 결혼 결과들에 관련된 변인들이 매우 다양하고(예;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개인차 변인들, 상호의존 변인들 및 의사소통 변인들), 어떤 특정의 이론이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한 것에 기인될 것이다.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이 취급되어 왔으며, 따라서 연구결과들도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압도적인 비율의 횡단연구들을 제외한 종단연구들에 한정된 한 고찰은 종래에 200개의 변인들이 취급되었고 900개의 상이한 발견들이 보고되었다고 지적했다(Karney와 Bradbury, 1995). 결혼 결과들에 대한 이와 같이 다양한

변인들의 관련성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이론들도 또한 다양하다. 결혼 결과들에 관련된 다수의 변인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어 왔고, 다룰 가능성이 있는 이론은 사회교환이론(Thibaut와 Kelley, 1959)이어서 왔다.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된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으로서, 이 이론은 보수와 처벌이 결혼 결과들에 각각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세 번째 이론은 애착이론으로서, 인간발달에 관한 아동의 애착이론(Bowlby, 1969;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을 성인기까지 일반화시킨 이론이다(예; Hazan과 Shaver, 1987, 1994). 그 밖에 다양한 이론들이나 관점들이 사용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이 분야의 3개의 주요 이론들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기타의 이론들을 언급할 것이다(이론의 고찰을 보기 위해서, Karney와 Bradbury, 1995; Holman, 2001 참조).

사회교환이론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회교환이론은 Thibaut와 Kelley(1959)의 상호의존이론이다. 이 이론은 행동주의 또는 강화이론을 경제학적 개념들을 빌어서 확장시킨 이론이다. 즉, 강화이론이 주로 상호작용에서 결과되는 강화의 받음에 초점을 둔 반면에(또한 강화물과의 연합도 취급되고 있음), 사회교환이론은 강화나 처벌(또는 보수나 손실)의 교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호의존이론은 보수와 부담의 요인들 이외에도, 개인의 관계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비교수준(CL)과 대안관계들에 대한 비교수준(대안관계들의 질에 대한 평가, 즉 CLalt)를 포함시키고 있다.

Levinger와(1965, 1976)는 사회교환의 개념들을 결혼에 최초로 적용시키면서, 결혼의 성공과 실패가 관계의 보수들(또는 매력들), 관계를 떠나는 것에 대한 장애들 및 관계 외부의 대안관계들의 매력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Lewis와 Spanier(1979, 1982)는 결혼 관계를 자원들의 교환과정이라고 간주하면서, 결혼만족이 결혼전의 사회적 및 개인적 자원들(예; 건강, 능력), 생활스타일(예; 가족구성, 맞벌이,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 및 부부간의 상호작용의 보수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Rusbult(1980)의 투자모형은 상호의존이론(Kelley & Thibaut, 1978)을 확장시켜서, 관계의 만족과 개입(또는 몰입)을

더 분명하게 구분지었고, 관계 개입(또는 몰입)이 관계만족, 대안관계 비교수준 및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안했다.

사회교환이론은 많은 변인들을 이론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동반관계의 지각과 직업적 지위는 매력들의 개념 속에, 그리고 공동체의 규범과 결혼유지에 대한 의무감은 이혼에 대한 장애들 속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은 결혼에 대한 만족과 안정성(또는 이혼)을 구분지음으로써 다양한 결혼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결혼 만족과 안정성이 시간적으로 생애과정 동안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만족과 안정성의 변화가 시간적으로나 생애과정적으로 어떻게 생기며, 관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까워지거나 해체되게 되는가를 상세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행동주의 이론

사회교환이론들이 관계에서의 보수들과 부담들을 행동보다 지각의 측면에서 개념화시키고 있는 반면에(Gottman, 1982, Newcomb과 Bentler, 1981), 행동주의 이론은 특수한 행동들의 교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동주의적인 강화이론들은 매력의 요인으로서 보수와 처벌의 제공(Byrne와 Clore, 1970)과 보수와 처벌과 타인의 연합(Lott와 Lott, 1974)을 강조하고 있으나, 결혼연구들에서는 전자의 보수와 처벌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예컨대, 결혼부부들이 관계문제의 토의 중에 보이는 보수를 주는 행동들과 처벌을 주는 행동들이 관계 결과들에 미치는 영향이 종단적으로 연구되어 왔다(예; Markman, 1981; Stuart, 1969; Wills, Weiss 및 Patterson, 1974).

행동주의이론은 관계의 인지적 측면들을 또한 포함시키기 위해 확장되어 왔으며(예; Baucom, 1987; Bradbury와 Fincham, 1990), 인지적 반응들이 차후의 상호작용 행동들에 대한 영향을 통해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예; Gottman, 1990, 1993).

행동주의이론은 만족을 주거나 불만족을 주는 상호작용적 행동들(예; 동의와 찬성, 분노나 경멸의 표현)을 통해 결혼만족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를 시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행동주의이

론은 결혼관계의 핵심이 되는 부부들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들을 미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들의 상호작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 배우자들의 생태학적 및 맥락적(또는 상황적) 측면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이론은 부부들의 미시적 분석수준인 상호작용 행동들에 초점을 두고 상호 작용 행동들의 근원들과 매일의 변동들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결혼의 이해에 관련있고 중요한 성격, 교육수준, 생활사건들과 같은 거시적 분석수준의 변인들이 취급되지 않고 있다.

이 이론은 또한 시간경과에 따라 관계들이 어떤 단계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는지를 발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예컨대, 시초에 적응적 의사소통패턴들이 시간경과에 따라 어떻게 악화되는가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이 이론은 불만족하거나 갈등이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유지하거나 이혼하는 것에 관련된 요인들을 취급하지 못한다(Karney & Bradbury, 1995).

애착이론

결혼 결과들이 각 파트너의 아동기의 관계경험들, 특히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경험들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장되어 왔다. 발달심리학적 관점에 뿌리를 둔 애착이론은 Bowlby(1969)의 연구에서 나왔다. 그는 아동의 시초의 가까운 관계가 아동에 대해 가까운 관계의 전형이나 내적인 작업모형(working model)을 형성시키고 이것이 생애의 전체 과정 동안에 개인의 가까운 관계의 성질을 결정짓는다고 제안했다. 양육자 - 아동 간의 여러 애착유형들 중에서, 3가지 주요 애착스타일이 강조되었으며(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것들은 안심애착, 불안-양가적 애착 및 회피 애착이다.

이러한 애착이론들을 성인기에 적용시킨 것은 Hazan과 Shaver(1987, 1994; Shaver, Hazan & Bradshaw, 1988)이다 이들은 성인들 간의 가까운 관계가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에 발달된 지속적인 애착스타일들을 반영하며, Ainsworth 등(1978)의 애착스타일들이 성인기의 가까운 관계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이론은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 관계내력과 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한 원가족의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원가족변인들과 상호작용행동들과 결혼결과들 사이의 연결을 시사하고 있으며, 애착스타일의 생애 지속성을 강

조함으로써 개인특성(애착스타일이 하나의 개인특성에 속할 수 있음)과 관계 결과들을 또한 연결시키고 있다.

이 이론은 부부들의 애착스타일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가, 애착스타일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관계에 영향을 주는가, 상이한 애착스타일들이 어떻게 지속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및 동일한 애착스타일을 가진 부부들이 어떻게 상이한 결혼 결과들을 가질 수 있는가의 의문들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기술된 3개의 이론들 이외에도 결혼결과들에 관련있거나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고려하고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들, 이론들 및 모형들이 제시되어 왔다. 사회학적 이론으로서, 상징적 상호작용론(Burr 등, 1979)은 결혼생활에서의 역할수행과 역할기대들의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가족 체계이론들(family systems theory)이 혼전요인들이 결혼결과들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결혼을 내부체계 파트너체계 및 기타 중요한 준거점들(예; 자녀, 직업 등)의 체계의 구분이 주장되었다(Marks, 1986). 가족체계이론과 발달적 접근을 종합해서,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들 즉 배경요인들, 성격특정들 및 상호작용과정들이 제안되었고, 가족배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화모형과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구성론적 모형이 사용되었다(Wamboldt와 Reiss, 1989).

결혼생활의 시간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발달적 접근들이 또한 사용되었다. Cate와 Lloyd(1992)는 혼전관계의 경험들이 결혼결과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했다. 최근에, Holman(2001)은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결혼 결과들의 변화와 연속성을 취급하고자 했고, 애착이론과 인간 생태학이론을 사용해서 혼전 변인들이 결혼 결과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모형을 제시했다.

스트레스나 생활사건들이 가족들의 적응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위기이론들(crisis theory)이 제안되었다(Hill, 1949; McCubbin과 Patterson, 1982). 이 이론들은 가족의 기능(즉, 위기)이 외부의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및 사건들에 대한 지각들이나 정의들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주장했다. 최근에, Karney와 Bradbury는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에 초점을 두고, 행동주의 모형을 사용해서 적응과정요인을 취급하고, 개인의 지속적 취약성

요인을 포함시키는 종합적 모형, 즉 결혼생활에 관한 취약성-스트레스-적응모형을 제시했다. 앞에서 논의된 여러 관점들과 이론들 이외에도 정신분석적이거나 정신역동적 관점이 사용되었지만(예; Mittleman, 1956), 결혼 결과들의 연구에 영향이 없었다(Karney와 Bradbury, 1995)의 연구들에 대한 고찰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들, 정신역동적 관점들 및 체제이론적 관점들이 이 분야의 연구들에 대해 영향력이 없었다고 지적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 목적은 결혼 결과들을 예측하는 다양한 혼전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앞에서 간략하게 고찰된 바와 같이, 이 분야의 연구들에서 다양한 많은 변인들이 취급되어 왔으며, 이것들은 대체로 가족 배경, 개인특징, 사회적 맥락 및 상호작용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이들 변인들은 직접적으로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주거나, 상호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들이나 경험적 지지들이 앞에서 간략하게 요약되었다.

여러 혼전변인들이나 결혼변인들이 결혼 결과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들 중에서 Lewis와 Spanier(1979)의 모형은 사회적 및 개인적 자원들, 생활스타일에 대한 만족 및 부부간의 상호작용에서 받는 보수들이 직접 결혼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이 세 요인들간의 상호관계나 영향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의 모형은 혼전 변인들보다 혼후 변인들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Karney와 Bradbury(1995)의 취약성-스트레스-적응 모형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의 지속적 취약성과 스트레스 사건이 적응과정에 영향을 주고, 후자가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 혼전 변인들 중의 배경특징(예; 교육수준, 부모-자녀 관계의 질, 부모의 이혼과 개인특징(예; 부정적 정서성, 사교기술 부족)은 적응과정에 대한 취약성 요인 속에 개념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Lewis와 Spanier(1979)의 모형과 Karney와 Bradbury(1995)의 모형은 결혼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한 결혼후 과정중심의 모형들이다. 이들 두 개의 모형에 비해서 Holman(2001)의 모형은 결혼전 과정중심의 모형이고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합치되는 모형

이다. 이 모형은 원가족, 사회관계망, 개인특징 및 상호작용과정의 4개의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상호 영향을 통해 결혼 후의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 모형은 결혼 결과들에 관련된 4개의 요인들을 모두 포괄하고, 혼전 요인들의 독립적 및 매개적 영향들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Holman(2001)의 모형을 연구의 기본 틀로 삼았다.

본 연구의 기본 틀인 Holman(2001)의 모형은 몇 가지 개선하거나 수정될 점이 있다. 이 모형의 검증에서 첫 번째의 문제는 각 요인들 속에 어떤 지표변인들(indicators)이 포함되어야만 되는가를 결정짓는 것에 관한 것이다. Holman(2001)의 연구에서 원가족요인에는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만족 및 교육수준, 부모-자녀 관계의 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특징의 요인에는 우울성, 충동성, 자기존중 및 결혼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관계망의 요인에는 사회관계망의 지원과 사회문화적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3개의 요인들에 포함된 지표변인들은 이전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선정되어 있어서, 비교적 대표적 지표변인들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지표변인들의 대표성에서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호작용요인에 관련된 것들인 것 같다. 상호작용의 지표변인들은 이론적 및 개념적 관점들에 따라 구체성에서 추상성에 이르는 차원 상에서 큰 변산을 보인다. 예컨대, Holman(2001)의 연구에서, 상호작용과정의 지표변인들은 태도와 성격특징의 유사성, 관계향상적 및 관계손상적 의사소통, 관계문제들에 대한 의견일치 및 남녀쌍의 정체성 형성이 포함되고 있어서, 비평, 방어, 동의와 같은 구체적 행동들보다 상호작용과정에서 일반화된 변인들이 사용되었다.

이미 진술된 바와 같이, 상호작용과정 요인의 지표변인들은 사용된 이론적 관점에 따라 구체적으로부터 추상적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인다. 관련된 이론들에서, 상호작용과정에 대해 가장 영향력있는 이론들은 강화이론과 사회교환이론이며, 이것들은 각각 상이한 분석수준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강화이론적 연구들(예; Gottman, 1979)은 관찰을 통한 구체적 행동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취급된 행동들은 긍정적 및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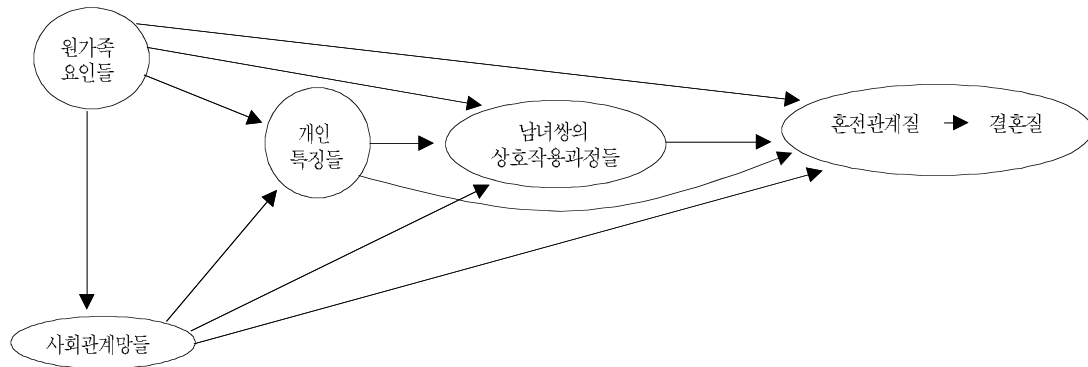


그림 1. 혼전 요인들과 결혼질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 모형(Holman, 2001, p. 25)의 수정모형

모형의 기술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그림의 우측 끝 부분에서 혼전관계질과 결혼질이 함께 기술되었다. Holman 모형에서는 결혼질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수정모형은 결혼질 앞에 혼전관계질을 포함시켰다. 이것들의 앞에 있는 4개의 변인들이 이것들의 각각에 대해 영향줄 것으로 가정되었다.

(예; 칭찬, 비평),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비율, 긍정적 및 부정적 행동의 상호성패턴, 갈등의 해결 회피, 갈등시의 요구-철회 행동패턴, 심지어 관계문제의 토의시의 파트너들의 생리적 흥분(예; 혈압 상승)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교환이론은 상호작용의 일반화된 지표변인들(예; 보수, 부담, 투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상호작용의 총체적 평가이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래에 사용된 상호작용과정의 행동적 및 사회교환이론적 지표변인들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서, 어느 변인들이 결혼 결과들의 예측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측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관심있는 변인은 파트너 간의 조화성 (compatibility 또는 harmony)으로서, 이것은 혼전관계 만족의 가장 큰 상관변인으로서(홍대식, 1998), 그리고 결혼 상호작용의 핵심요인으로서(이호신, 2001)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Holman(2001)의 모형의 두 번째 문제점은 혼전 변인들이 결혼결과들에 “시간적으로 또는 발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의 의문이 취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이 결혼결과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결혼 결과들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가정될 수 있는가? 또한 혼전의 상호작용과정(예; 비평)이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것은 결혼 결과들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가정될 수 있는

가? 후자의 예에서, 혼전의 상호작용과정은 그것들이 과거의 감정(또는 평가)이나 인지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기억 속에 유지되었기 때문에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주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상호작용과정이 결혼 후까지 계속 지속되어서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주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는다. 단지, 이론적으로 혼전의 4개의 요인들이 직접 혼후의 결혼 결과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기보다 혼전의 4개의 요인들이 혼전의 관계 결과들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역동적 관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있게 유지되는 것으로서 개념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Holman(2001)의 일반 모형에서, 상호과정요인의 다음에 혼전관계의 질의 변인들(즉, 혼전관계의 만족과 유지의사)을 첨가시켜서 수정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Holman(2001)의 결혼 결과들에 대한 혼전변인들의 관련성에 관한 모형을 수정해서 혼전관계의 질(혼전 관계의 만족과 유지의사)을 포함시키고 상호작용과정요인의 변인들을 확장시켜서, (1)두 모형의 상대적 예측력을 비교하고, (2)원가족, 개인특징, 사회관계망, 상호작용과정 및 혼전관계의 질(즉 혼전관계의 만족과 유지의사)변인들이 결혼 질(즉, 결혼 만족과 유지의사)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 이외에도,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예측력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혼전 상호작용과정의

변인들의 측면에서, 이전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한 의사소통변인(예; Holman, 2001) 이외의 여러 변인들, 즉 조화성, 공동 활동, 의견일치 등을 추가시켜서 결혼질을 예측하는 데 대한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우수성을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참가자는 427쌍(전체 854명)의 부부들이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41.6세이었고, 평균 결혼기간은 14.8년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 포함)이 51.0%이었고 고등학교 졸업이 33.9%이었다(표 1 참조).

측정도구

본 연구는 Holman(2001)의 일반 모형을 수정하여 사용했으므로,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PREP-M)의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그 밖에 본 연구

자가 관심을 둔 선행 연구들의 변인들을 추가시켜서 질문지를 작성했다(표 2 참조). 일반적으로, 결혼질에 관련 있을 것으로 가정된 원가족(즉 가족배경), 개인 특징 및 사회관계망 요인들에 관련된 변인들은 그들의 질문지에서 사용된 것과 대체로 동일한 반응질문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특별하게 초점을 둔 상호작용과정요인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변인들을 사용해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또한 관심을 둔 혼전관계의 만족과 지속의사는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의 측정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반응질문들이 사용되었다. 이하에, 본 연구의 구성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원가족 요인

부모의 결혼질

성장했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했던 정도를 질문하는 2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매우 불만족했다(1)에서 매우 만족했다(5)의 범위에 이르는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와 모의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졸업이하(1)에서 대학원 졸업 (6)까지의 6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부모-자녀관계 질

성장했던 동안의 부모와 응답자의 관계의 질이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 및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에 의해 측정되었다. 부와 모와의 관계들은 각각 부와 모가 응답자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인 것, 함께 재미있는 활동에 참가한 것 및 당혹감이나 기분상함의 두려움이 없이 각자의 느낌을 편하게 함께 이야기한 것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응답은 각각 전혀 없었다(1)에서 자주 있었다(5)까지의 범위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두 척도의 내적 합치도(α)는 각각 .78이었다.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은 성장했던 동안의(즉, 20세 이전까지) 가족들에 대한 친근감, 가족이 함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 가족이 행했던 재미있는 일들의 수 및 가족들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표 1. 참가자들의 특징 *

변 인 들	남 자	여 자	전 체
연령(세)	43.1	40.2	41.6
결혼연령(세)	28.6	25.6	27.1
결혼기간(년)			14.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4	3.0	2.2
중학교	4.2	4.9	4.6
고등학교	27.0	40.7	33.9
전문대	5.6	7.7	6.7
대학교	48.6	40.0	44.3
대학원	13.1	3.5	8.3
취업상태(%)			
모두 취업			45.8
남편만 취업			53.2
아내만 취업			1.0
자녀 수(명)			2.04
종교(%)			
없음	44.7	31.5	38.1
카톨릭	14.8	19.5	17.1
개신교	24.6	30.5	27.5
불교	14.8	16.4	15.6
기타	1.2	2.1	1.6

*백분율 이외의 수치는 평균치임.

응답 범주들의 범위는 각각 매우 불만족했다(1)에서 매우 만족했다(5)까지의 5점 척도이었다. 이것의 α 는 .86이었다.

개인 특징들

신체매력

신체매력의 지각은 결혼전의 자신과 파트너의 신체매력을 측정하는 2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엄밀히 볼 때, 파트너의 신체매력의 지각은 개인특징에 속한다고 보기가 곤란하지만, 자신의 신체매력과 비교되는 개인적 지각변인으로서 본 연구에 추가되었다. 반응범주들은 매우 매력 없었다(1)에서 매우 매력 있었다(5)까지의 범위이었다.

건강

건강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2개의 문항과 성격적 건강들, 즉 우울, 충동성 및 자기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의해 측정되었다. 결혼전의 일반 적인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각각 매우 건강하지 않았다(1)에서 매우 건강했다(5) 까지 이르는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우울은 결혼전에 슬픔과 우울을 느낀 것, 절 망을 느낀 것 및 의기소침해진 것을 느낀 것을 취급하는 3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것의 α 는 .83이었다. 충동성은 결혼전에 충동적 행위로 인해 곤란에 빠진 것 및 자신의 성미(또는 성질)를 조절하는 데에 곤란을 가진 것을 취급하는 2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것의 α 는 .66이었다. 자기존중은 결혼 전에 몇 가지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느낀 것, 가치 없다고 느낀 것,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 훌륭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 및 실패자라고 느낀 것을 취급하는 5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자기존중 척도의 요인분석은 2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능력요인, 즉 실패자, 가치없음 및 훌륭한 것과 평가요인, 즉 좋은 특성과 긍정적 태도로 구분되었고, α 는 각각 .76과 .64이었다. 우울, 충동성 및 자기개념의 문항들의 응답 범위는 전혀 없었다(1)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5)까지이었다.

결혼에 대한 기대

결혼에 대한 기대(홍대식, 1998 참조)는 “결혼 전에

당신은 장래의 결혼생활이 당신이 관여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많은 진정한 개인적 만족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즉, 결혼만족의 기대)와 “결혼 전에 당신은 당신의 장래의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라고 기대했습니까?”(즉, 결혼성공의 기대)의 2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응답범위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1)에서 매우 많이 기대했다(5)까지이었으며, 2개 문항의 평균치가 또한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사회관계망

관계망의 결혼지지

사회관계망의 결혼지지나 승인은 부모, 파트너의 부모 및 친구들의 결혼 찬성을 취급하는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반대했다(1)에서 매우 찬성했다(5)까지 이르는 5 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관계망과의 관계

관계망과의 관계는 파트너의 부와 모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는 2개 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싫어했다(1)에서 매우 좋아했다(5)까지 이르는 5 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사회문화적 특징들

응답자의 결혼연령(만 연령) 과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 대학원까지)을 취급하는 2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상호작용과정들

파트너들의 혼전 상호작용과정들을 개념화시키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상호작용과정들이 구체적 행동들로부터 추상적인(즉 일반화된) 지각들이나 평가들까지의 범위에 이르는 측면들에서 개념화될 수 있는 데에 주로 기인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의 결혼결과들의 예측에 대한 상대적 적절성을 알아 보기 위해, 가급적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켰다. 이들 변인의 분류방식에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표 3에서와 같이, 혼전 관계의 일반적 가까움, 의사소통, 행동과 정서의 긍정성, 갈등해결패턴, 유사성의 지각과 의견일치, 관계의 조화성지각(홍대식, 1998; 이호신 2000 참조), 관계

의 일반적 지각(즉 사회교환변인들)으로 분류되었다.

혼전관계의 일반적 가까움

혼전관계의 일반적 가까움의 지표변인들로서 데이트 관계의 기간, 데이트 빈도, 관계에 대한 관심과 노력, 신체적 가까움, 혼전 동거 여부와 임신 여부가 포함되었다. 데이트관계의 기간은 한 쌍의 남녀로서 교제하는 것의 기간으로서 1개월 미만에서 2년 이상의 6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데이트 빈도는 결혼전 3개월 동안에 평균 적으로 데이트한 회수로서 1주일에 6, 7회(즉 거의 매일)에서 4주일 이상에 1회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관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두 사람이 모두 적었다, 나는 많았고 파트너는 적었다, 나는 적었고 파트너는 많았다 및 두사람이 모두 적었다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체적 가까움은 결혼 전에 거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손이나 팔을 잡았다, 유방이나 성기관의 애무 및 성교의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동거 여부는 1개월 이상 동거한 여부로서 측정되었고, 혼전의 임신 여부가 측정되었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자신의 일반적인 관계향상적 의사소통척도, 자신의 일반적인 관계 손상적 의사소통척도, 그리고 갈등시의 자기와 파트너의 긍정적 및 부정적 의사소통의 4개의 척도들에 의해 측정되었다. 관계향상적 및 관계손상적 의사소통의 2개의 척도는 Holman(2001)의 척도와 동일한 것들이었다. 관계향상적 의사소통척도는 파트너가 말하고 자 의도한 것을 이해한 것, 파트너의 감정을 이해한 것, 파트너와 함께 일들에 관해 대화한 것, 파트너와 만나지 못했던 동안에 일어났던 즐거운 일들에 관해 이야기해 준 것의 5개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것의 α 는 .83이었다. 관계손상적 의사소통은 파트너에게 잔소리한 것, 파트너가 화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파트너에 대해 나의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한 것,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을 파트너에게 말한 것 및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에 부루통하거나 토라진 것의 5개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것의 α 는 .74이었다.

갈등시의 자기와 파트너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의사소통은 각각 3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갈등시 긍정적 의사소통은 동의(또는 인정)하기, 유우머를 말하

기 및 웃기의 3개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부정적 의사소통은 불평(또는 비평)하기, 거부(또는 대)하기 및 언어적 및 신체적 위협이나 공격의 3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들에서 반응범위는 각각 전혀 없었다(1)에서부터 매우 자주 있었다(5)까지이었다. 이 4개의 척도들의 α 는 .73과 .77의 범위이었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서 공동적 활동과 대화가 포함되었으며, 함께 나들이(예, 외출, 외식 등)을 행한 것, 서로 개인적 생각과 재미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한 것, 웃는 것, 조용하게 상의한 것의 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반응범위는 전혀 없었다(1)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5)까지이었다. 이것의 α 는 .83이었다.

행동과 정서의 긍정성

이 범주에 속한 문항들은 긍정적 행동의 발생, 부정적 정서의 발생 및 자기와 파트너의 각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비율에 관한 것이다. 긍정적 행동의 발생은 서로 상대했을 때에 유쾌한 말과 행동이 일어났던 것에 관한 문항, 그리고 긍정적 정서의 발생은 서로 상대한 후에 기분이 유쾌했던 것에 관한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2개의 문항의 반응범위는 전혀 없었다(1)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5)까지이었다. 자기와 파트너의 각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비율(Gottman, 1994)은 각자가 일 상적으로 상대할 때에 상대방에게 행했던 10개의 전체 행동 중에서 불쾌한 행동의 숫자에 관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2개의 문항의 반응범위는 1-2개(1)에서 9-10개(5)까지이었다.

갈등해결패턴

갈등이나 의견불일치의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들, 행동패턴들 및 갈등시의 부정적 정서가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 세부 범주들은 갈등의 협력적·건설적 해결, 갈등의 표현, 갈등의 해결 회피(Gottman & Krokoff, 1989, Grohan, 1992; Smith 등, 1990), 요구 철수패턴(Christensen & Heavey, 1990), 자기와 파트너의 부정성(Gottman, 1979; Schaap, Buunk & Kerkstra, 1988), 공격의 심화, 공동 흥분, 갈등시의 정서적 고통 및 불쾌감이었다.

갈등의 협력적 및 건설적 해결은 갈등이나 의견불일치가 생길 때에 협력해서 해결한 정도(1 : 전혀 협력하

지 않았다; 5 : 매우 자주 협력했다)와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의 정도(1 : 매우 건설적이었다; 5 : 매우 파괴적이었다)의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갈등의 표현은 둘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생길 때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한 정도(1 :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5 : 매우 잘 표현했다)로서 측정되었다. 갈등의 해결·회피는 갈등이나 의견 불일치가 생길 때에 즉각 해결하거나 회피한 정도(1 : 매우 즉각 해결했다에서 5 : 해결을 매우 회피하는 편이었다까지)로서 측정되었다. 요구와 철수패턴은 갈등상황에 있을 때에 여자가 개선(또는 변화)을 요구하고 남자측이 해결을 회피하려고 든 정도(1 : 전혀 그렇지 않았다에서 5 : 매우 그랬다까지)로서 측정되었다.

자기와 파트너의 부정적 상호성은 각자가 파트너의 부정적이거나 불쾌한 행동에 대해,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1 : 전혀 없었다에서 5 : 매우 자주있었다까지)으로서 측정되었다. 공격의 심화는 두 사람이 문제를 토의하거나 말다툼할 때에 서로 언어적이거나 행동적으로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일”의 정도(1 : 전혀 없었다에서 5 : 매우 자주 있었다까지)로서 측정되었다. 공동 흥분은 둘이 말다툼하거나 논쟁할 때에 자주 함께 흥분했던 정도, 즉 함께 땀대를 울리고, 얼굴색을 변하고 신체 자세가 긴장했던 정도(1 : 전혀 없었다에서 5 : 매우 자주 있었다까지)로서 측정되었다. 갈등시의 정서적 고통은 둘이 갈등상 태에 있거나 말다툼했을 때에 자신이 정신적 고통(좌의식, 분노, 마음 상함 등)을 느꼈던 정도(1 : 전혀 없었다에서 5 : 매우 많았다)로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갈등시의 불쾌감은 둘이 갈등이 생기거나 말다툼 할때에 자신이 느낀 불쾌한 감정(즉, 혐오감, 좌절감과 분노감, 무력감 등)의 정도(1 : 전혀 없었다에서 5 : 매우 많았다까지)로서 측정되었다.

유사성의 지각과 의견일치

개인적 특성들의 유사성은 가정경제수준, 교육수준, 지적 능력, 신체매력, 성격, 종교성(신앙), 도덕성, 성적 기준의 엄격성, 가정의 중요성 및 취미와 여가활동의 10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반응범위는 매우 차이있었다(1)에서 매우 비슷했다(5)까지이었다. 이 척도의 요인분석은 교육적-능력적 유사성, 즉 지적 능력, 교육수준, 신

체매력 및 사회경제수준과 도덕적 유사성, 즉 도덕성, 가정의 중요성, 성기준, 취미와 여가, 성격 및 종교의 2개의 요인을 나타냈으며, 각각의 α 는 .72와 .70이었다.

의견일치의 정도는 데이트활동의 종류, 돈의 지불문제, 종교문제,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 방식, 파트너의 부모를 대하는 방식, 함께 지내는 시간수 및 사회 및 정치 문제들의 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반응범위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1)에서 항상 일치했다(5)까지이었다

관계의 조화성 지각

관계의 조화성 지각은 두 사람이 데이트상대들, 한쌍의 남녀 및 장래의 부부로서 조화되는 정도를 취급하는 3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반응범위는 전혀 없었다(1)에서 매우 많았다(5)까지이었다. 이것의 α 는 .89이었다.

관계상태의 일반적 지각(즉 사회교환변인들)

혼전의 관계상태의 일반적 지각은 사회교환이론(Rusbult, 1980)에서 취급된 4개의 변인들 즉 혼전 관계의 보수, 부담, 대안관계의 질 및 투자이다.

데이트관계의 보수는 데이트관계가 보수를 준 정도를 취급하는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데이트관계의 부담은 데이트관계가 부담을 준 정도를 취급하는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대안관계의 질은 파트너 이외의 대안이 되는 관계들의 매력을 취급하는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투자는 데이트관계 속에 투입한 것들(예; 시간, 금전 등)을 취급하는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변인들의 반응범위는 전혀 없었다(1)에서 매우 많았다(5)까지이었다.

혼전관계의 질(만족과 지속의사)

결혼전의 데이트관계의 만족은 혼전에 경험했던 신체적 친밀감, 사랑, 갈등의 해결방식, 관계의 평등성(또는 동등성), 함께 지낸 시간수, 의사소통의 질 및 전반적 관계를 취급하는 7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반응범위는 매우 불만족했다(1)에서 매우 만족했다(5)까지이었다. 이것의 α 는 .84이었다.

혼전관계의 지속의사는 파트너와의 데이트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끝내는 것을 취급하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반응 범위는 유지시킬 의사가 매우 많았다(1)

에서 끝낼 의사가 매우 많았다(7)까지이었다.

결혼 질(만족과 지속의사)

현재의 부부관계의 만족은 자신이 현재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측면들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혼전관계의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같은 내용이었다. 이것의 α 는 .87이었다. 부부관계의 지속의사도 또한 혼전관계의 지속의사를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절차

조사지는 심리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2개 학급의 대학생들의 실험과제로서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1쌍이나 2쌍의 부부를 조사하도록 요구받았으며, 20-30대나 40-50대의 부부를 조사했다. 조사지는 부부가 상의하지 않고서 독립적으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조사지가 완료한 후에 밀봉해서 전달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조사는 2004년 10월 초의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결 과

변인들의 평균치의 성차

본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들에 대한 남녀별 평균치

들과 남녀간 차이검증(t 검증)결과들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본연구의 준거변인들인 부부관계의 만족과 부부관계의 지속의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만족이 더 높았고($p < .001$), 결혼의 지속의사도 더 높았다($p < .05$). 이러한 결과는 혼전데이트관계의 만족에서도 나타났는데, 남자는 여자보다 데이트관계에 대한 만족이 더 높았고($p < .001$) 데이트관계의 지속의사도 더 높았다($p < .001$).

본연구의 여러 예측변인들에서도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원가족 변인들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모의 결혼만족을 더 낮게 평정했고($p < .05$), 부모-자녀관계의 3개의 측면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정했다. 개인특징의 변인들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건강($p < .001$), 우울($p < .001$), 자기존중(평가)($p < .01$) 및 결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각각 $p < .001$ 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정했다. 그 밖에 본인의 신체매력, 정신건강(일반), 충동성 및 자기존중 능력에서는 평정치들의 남녀차이가 없었다. 사회관계망 변인들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관계망의 결혼지지를 더 높게 평정했으며 파트너의 부모에 대한 호감들도 더 높게 평정했다.

혼전 상호작용과정의 변인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측면들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부부간의 차이가 드물게 유의했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일반적 측

표 2. 변인들의 남녀의 평균치들과 예측변인들과 관계질 간의 상관

	잠재변인들	지표변인들 1)	남 여 차이 3)			상관계수(r 2)			
			(M)	(M)	(t)	데이트 만족	데이트 지속	결혼만족	결혼지속
1. 원가족	(1) 부모의 결혼 질	부부의 결혼만족	3.46	3.41	.76	.23*** (.10*)	-.00 (.01)	.28*** (.15**)	-.09 (-.05)
		모의 결혼만족	3.25	3.08	2.42*	.22*** (.13**)	.01 (-.12*)	.27*** (.16**)	-.01 (-.06)
	(2) 가족의 사회	부부의 교육수준*	2.72	2.89	1.59	.19*** (.26***)	-.03 (-.14**)	.19 (.22***)	-.02 (-.13**)
		모의 교육수준*	1.99	2.12	-1.43	.16** (.29***)	.02 (-.13**)	.14 (.28***)	-.00 (-.10*)
	(3) 부모-자녀 관계	부와의 관계*	2.80	2.99	-3.58***	.19*** (.16**)	.02 (-.07)	.23 (.08)	.02 (-.09)
		모와의 관계*	3.28	3.50	-4.10***	.24*** (.24***)	-.01 (-.16**)	.23 (.25***)	-.06 (-.15**)
2. 개인 특징들	(1) 신체매력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3.20	3.30	-2.19*	.32*** (.16**)	-.06 (-.16**)	.36*** (.19***)	-.08 (-.12*)
		본인의 신체매력	3.46	3.44	.39	.17*** (.20***)	-.06 (-.07)	.09 (.11*)	-.10* (-.02)
		파트너의 신체매력	3.89	3.46	8.48***	.41*** (.34***)	-.22*** (-.24***)	.34*** (.20***)	-.26 (-.12*)
	(2) 건강	신체건강(일반)	4.21	3.92	5.08***	.14** (.07)	-.08 (-.10*)	.12* (.03)	-.09 (-.01)
		정신건강	4.07	4.00	1.40	.20*** (.12*)	-.13** (-.20***)	.16** (.02)	-.08 (-.01)
		우울*	2.42	2.65	-4.97***	-.13** (-.09)	.09 (.10*)	-.11* (-.03)	.07 (-.02)
		충동성*	2.28	2.21	1.46	-.16** (.05)	.19*** (.00)	-.19*** (-.02)	.16** (-.04)
		자기존중(능력)*	3.48	3.41	1.63	.26*** (.20***)	-.16 (-.10*)	.20*** (.14**)	-.12* (-.10*)
		자기존중(평가)*	4.02	3.90	2.69**	.24*** (.21***)	-.15** (-.11*)	.21*** (.19***)	-.17** (-.07)
	(3) 결혼 기대	결혼기대	3.86	3.67	3.93***	.36*** (.28***)	-.25*** (-.31***)	.27*** (.17**)	-.21*** (-.08)

〈표 2. 계속〉

	잠재변인들	지표변인들 1)	남 (M)	여 (M)	차이 3) (t)	상관계수(r)2)			
						데이트 만족	데이트 지속	결혼만족	결혼지속
3. 사회관계망	(1) 관계망의 결혼 지지	부모의 결혼찬성*	4.01	3.55	6.97 ***	.24 *** (.04)	-.25 *** (-.20 ***)	.26 *** (.17 **)	-.13 *** (-.15 **)
		파트너 부모의 결혼찬성*	3.79	3.94	-2.53 *	.08 (.05)	-.02 (-.04)	.18 *** (.08)	-.02 (-.14 **)
		친구들의 결혼찬성	4.13	3.69	8.43 ***	.33 *** (.24 ***)	-.30 *** (-.21 ***)	.29 *** (.19 ***)	-.25 *** (-.11 *)
	(2) 관계망과의 관계	파트너의 부모에 대한 호감	3.76	3.44	5.43 ***	.32 *** (.25 ***)	-.19 *** (-.24 ***)	.33 *** (.22 ***)	-.16 *** (-.12 *)
	(3) 사회문화적 특징들	결혼연령	28.60	25.65	15.49 ***	-.05 (-.01)	.02 (-.02)	.04 (.07)	.09 (-.06)
		교육수준	4.35	3.87	5.84 ***	.24 *** (.34 ***)	-.09 (-.13 **)	.21 *** (.26 ***)	-.16 *** (-.15 **)
4. 혼전상호 작용 과정들	(1) 혼전관계의 일반적 가까움	데이트 기간	4.45	4.44	.02	.23 *** (.29 ***)	-.09 (-.13 **)	.15 ** (.14 **)	-.09 (-.06)
		데이트 빈도	3.14	3.09	.53	-.32 *** (-.38 ***)	.04 (.07)	-.03 (-.09)	.08 (.05)
		관계에 대한 관심, 노력	1.57	1.80	-3.28 **	-.32 *** (-.43 ***)	.25 *** (.32 ***)	-.20 *** (-.27 ***)	.23 *** (.14 **)
		신체적 가까움	3.39	3.30	1.11	.15 ** (.26 ***)	-.02 (-.10 *)	.04 (.05)	-.07 (-.00)
		동거여부	1.89	1.91	-.91	-.07 (-.08)	-.04 (-.00)	.08 (.02)	-.00 (-.04)
		혼전임신여부	1.85	1.86	-.39	-.06 (.01)	-.07 (-.08)	.08 (.09)	.00 (.00)
	(2) 의사소통	관계향상의사소통(자기) *	3.72	3.69	.71	.46 *** (.56 ***)	-.23 *** (-.25 ***)	.33 *** (.32 ***)	-.16 *** (-.22 ***)
		관계손상의사소통(자기) *	2.49	2.58	-2.07 *	-.15 ** (-.00)	.17 *** (.02)	.10 (-.07)	.14 ** (-.05)
		갈등시의 긍정적 의사소통(자기)	3.73	3.69	.79	.42 *** (.44 ***)	-.18 *** (-.22 ***)	.31 *** (.28 ***)	-.24 *** (-.17 **)
		갈등시의 긍정적 의사소통(파트너)	3.71	3.72	-.21	.41 *** (.43 ***)	-.20 (-.18 ***)	.26 *** (.30 ***)	-.13 *** (-.19 ***)
		갈등시의 부정적 의사소통(자기)	2.20	2.31	-2.67 **	-.30 *** (-.12 *)	.25 *** (.13 ***)	-.23 *** (-.15 **)	.23 *** (.14 **)
		갈등시의 부정적 의사소통(파트너)	2.15	2.10	1.23	-.16 ** (-.20 ***)	.19 *** (.04)	-.12* (-.16 **)	.00 (-.15 ***)
	(3) 행동과 정서의 긍정성 부정성	긍정적 행동의 발생	3.76	3.72	.81	.49 *** (.52 ***)	-.23 *** (-.20 ***)	.32 *** (.30 ***)	-.17 *** (-.17 ***)
		긍정적 정서의 발생	3.95	3.84	2.27 *	.48 *** (.54 ***)	-.29 *** (-.28 ***)	.31 *** (.31 ***)	-.16 *** (-.18 ***)
		긍정적 부정적 행동의 비율(자기)	1.43	1.47	-.73	-.26 *** (-.26 ***)	.14 ** (.14 **)	-.19 *** (-.16 **)	.18 *** (.07)
		긍정적 부정적 행동의 비율(파트너)	1.41	1.46	-1.06	-.22 *** (-.26 ***)	.15 ** (.11 *)	-.17 ** (-.22 ***)	.21 *** (.12 *)
		갈등의 협력적-건설적 패턴	2.87	2.99	-.32	.03 (.05)	.05 (-.03)	.04 (.08)	.04 (-.06)
		갈등의 표현	3.30	3.33	-.43	.26 *** (.34 ***)	-.09 (-.14 **)	.19 *** (.26 ***)	-.00 (-.17 ***)
	(4) 갈등해결패턴들	갈등의 해결과 회피	2.49	2.56	-1.37	-.22 *** (-.34 ***)	.17 *** (.21 ***)	-.25 *** (.20 ***)	.15 ** (.13 **)
		요구와 철수 패턴	2.36	2.39	-.44	-.13 ** (-.17 **)	.06 (.03)	-.06 (-.20 ***)	.00 (.09)
		부정적 상호성(자기-파트너)	2.70	2.75	-.89	-.14 ** (-.06)	.16 ** (-.03)	-.04 (.03)	.05 (.04)
		갈등시의 정신적 고통	3.11	3.12	-.20	.06 (.11 *)	.00 (-.04)	.02 (.02)	-.04 (.02)
		갈등의 불쾌감	2.81	3.00	-3.16 **	-.08 (-.03)	.08 (.03)	-.08 (-.01)	.01 (.02)
		공동흥분	2.39	2.43	-.75	-.26 *** (-.16 **)	.26 *** (.05)	-.20 *** (-.10)	.19 *** (.04)
	(5) 유사성의 지각과 공동활동	유사성 지각(교육·능력) *	3.51	3.40	2.12 *	.33 *** (.28 ***)	-.24 *** (-.15 **)	.29 *** (.27 ***)	-.21 *** (-.14 **)
		유사성 지각(도덕) *	3.55	3.51	.96	.42 *** (.39 ***)	-.33 *** (-.35 ***)	.33 *** (.36 ***)	-.25 *** (-.23 ***)
		의견일치*	3.69	3.56	1.94	.54 *** (.51 ***)	-.30 *** (-.33 ***)	.35 *** (.30 ***)	-.22 *** (-.16 **)
		공동활동	3.69	3.71	-.37	.53 *** (.53 ***)	-.26 *** (-.21 ***)	.36 *** (.38 ***)	-.18 *** (-.23 ***)
	(6) 관계의 조화성지각	조화성	3.85	3.65	4.18 ***	.56 *** (.58 ***)	-.35 *** (-.38 ***)	.38 *** (.36 ***)	-.25 *** (-.17 ***)
	(7) 관계상태의 일반적 지각 (사회교환변인들)	혼전관계의 보수	3.57	3.39	3.09 **	.48 *** (.54 ***)	-.33 *** (-.24 ***)	.35 *** (.28 ***)	-.29* (-.17 ***)
		혼전관계의 부담	2.35	2.46	-2.28 *	-.15 ** (-.14 **)	.13 ** (.26 **)	-.14 ** (-.16 **)	.10* (.08)
		대안관계의 질	2.73	2.70	.64	-.05 (-.03)	.07 (.08)	-.03 (-.07)	.04 (.12 *)
		투자	3.59	3.23	6.25 ***	.42 *** (.47 ***)	-.25 *** (-.29 ***)	.30 *** (.21 ***)	-.24 *** (-.12 *)
5. 혼전관계의 만족과 지속의사	혼전관계의 만족	혼전관계의 만족	3.70	3.55	4.10 ***	1.00 (1.00)	-.33 *** (-.39 ***)	.53 *** (.43 ***)	-.29 *** (-.23 ***)
		혼전관계의 지속의사	1.69	2.25	-7.18 ***	-.33 *** (-.39 ***)	1.00 (1.00)	-.27 *** (-.25 ***)	.38 *** (.18 ***)
6. 부부관계의 만족과 지속의사	부부관계의 만족	부부관계의 만족*	3.62	3.37	5.40 ***	.53 *** (.43 ***)	-.27 *** (-.25 ***)	1.00 (1.00)	-.45 *** (-.50 ***)
		부부관계의 지속의사	1.42	1.54	-2.15 *	-.29 *** (-.23 ***)	.38 *** (.18 ***)	-.45 *** (-.50 ***)	1.00 (1.00)

1) 지표변인들 옆의 *표시는 Holman(200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변인들이며, 나머지 변인들은 본연구에서 추가된 것임.

2) 괄호 안은 여자의 상관계수임.

3) 차이(t)와 상관계수의 의의도 : * $p < .05$, ** $p < .01$ 및 *** $p < .001$.

면들(예, 관계의 조화성지각, 혼전관계의 보수)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정했다. 남녀 차이가 유의한 상호작용 변인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는 남자보다 파트너가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정했고($p < .01$), 자신이 관계손상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했으며($p < .05$),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정서가 더 적었으며($p < .05$), 갈등의 불쾌감이 더 컸고($p < .01$), 유사성(교육과 능력의 측면)이 더 적었고($p < .05$), 관계의 조화성들이 더 낮았고($p < .05$ 또는 $p < .001$), 혼전관계의 보수가 더 적었고 부담이 더 컸고, 투자가 더 작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자들은 남성들보다 혼전관계의 여러 상호작용의 측면들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정했다. 이러한 경향은 혼전관계의 만족과 지속의사 그리고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에서 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준거변인들과 예측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연구의 주 관심사가 결혼질, 즉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의 준거변인들과 5개의 예측변인들 사이의 상관에 있으므로, 준거변인들과 예측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의의도가 계산되었다(표 2 참조). 60개의 예측변인들과 결혼만족 간의 .05수준 이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들은 52개 이었고, 결혼 지속의사 간의 유의한 상관계수들은 42개 이었다. 즉, 예측변인들과 결혼만족 간의 상관들은 대부분(87%)이 유의하였고, 예측변인들과 결혼 지속의사 간의 상관들은 이것보다 유의한 상관들이 감소되었고(70%) 상관계수의 크기도 더 감소되었다. 예측변인들과 준거변인들 간의 상관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원가족 변인들

부모의 결혼질,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 자녀 관계의 7개의 지표변인들이 모두 결혼만족과 낮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7개 지표변인들 중의 4개만이 결혼 유지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상관계수의 크기도 결혼만족에 대한 상관계수보다 모두 더 작았다.

개인특징변인들

신체매력, 건강 및 결혼에 대한 기대의 10개의 지표변인들이 모두 비교적 낮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

나 10개의 지표변인들 중의 5개만이 결혼 지속 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상관계수의 크기도 결혼만족에 대한 상관계수보다 모두 더 작았다.

사회관계망변인들

관계망의 결혼지지, 관계망과의 관계 및 사회문화적 특징들의 7개의 지표변인들과 결혼만족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7개 지표변인들 중의 6개가 결혼지속 의사와 모두 더 낮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혼전 상호작용변인들

혼전관계의 일반적 가까움, 의사소통, 행동과 정서의 긍정성, 갈등해결 패턴들, 유사성의 지각과 공동활동, 조화성지각 및 관계상태의 일반적 지각(사회교환변인들) 외 총 33개의 지표변인들 중의 25개 변인들이 결혼만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24개 변인들이 결혼 지속의사와 일반적으로 더 낮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데이트 빈도, 혼전의 신체적 가까움, 동거 여부, 갈등의 협력적 건설적 해결, 자기와 파트너의 부정적 상호성, 갈등시의 정서적 고통, 갈등의 불쾌감이 모두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와 상관이 유의치 않았으며, 대안관계의 질은 결혼만족과 상관이 유의치 않았다. 따라서, 혼전관계의 일반적 가까움(예; 데이트 빈도)과 혼전의 갈등 행동과 반응들이 일반적으로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와 상관이 유의치 않았다.

혼전관계의 만족과 지속의사 변인들

혼전관계의 만족은 결혼만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 = .49$), 결혼 지속의사와 유의한 상관(.26)을 보였다. 혼전관계 지속의사는 결혼만족(.29)과 지속의사(.28)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상호작용과정 변인들 중에서 관계의 일반적 가까움(예; 데이트빈도)의 지표변인들과 갈등 행동과 반응(예; 부정적 상호성)의 지표변인들을 제외한, 원가족, 개인특징, 사회관계망, 혼전 상호작용과정 및 혼전관계 질의 대부분의 지표변인들이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혼질에 대한 지표변인들은 대체로 모형과 일치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특히, 본연구의 가설로서 특별히 추가된 혼전 관계의 만족과 지속의사의 변인들이 결혼만

족($r=.49$)과 지속의사($r=.28$)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서, 이 변인들에 대한 가설이 강력하게 지지되었다.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와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들

위에서, 결혼질과 예측변인들 사이의 상관의 의의도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상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에 관련될 것으로 가정된 여러 지표변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를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변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혼질(즉,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과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표 2 참조).

첫째로, 혼전관계의 만족이 결혼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49$), 결혼 지속의사와도 두 번째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r=.26$).

둘째로, 많은 혼전 상호작용과정 변인들이 결혼 만족

과 지속의사와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었다. 혼전관계의 조화성에 관련된 3개의 변인들인 혼전 공동활동(각각 .36과 .20), 조화성 지각(각각 .35와 .20), 유사성지각(도덕) (각각 .34와 .24) 그리고 의견일치(각각 .33과 .20)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정에서의 긍정적 행동 발생과 긍정적 정서 발생이 관계 만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각각 .31과 .32). 관계향상 의사소통(각각 .29와 .19)과 갈등시의 자신의 긍정적 의사소통(각각 .29와 .20)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 사회교환 변인들인 보수(각각 .32와 .23)와 투자(각각 .28과 .18)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 밖에, 관계 만족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25), 교육수준(.26), 파트너의 부(.25)와 모에 대한 호감(.28), 부모의 결혼찬성(.24) 및 결혼 성공에 대한 기대(.24)이었다.

여러 예측변인들이 준거변인들인 결혼만족과 지속의사에 대한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별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예측변인이 관계질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잠재변인들	지표변인들	관계질(β 계수)							
			데이트 만족1)		데이트 지속		결혼만족		결혼지속	
1. 원가족	(1) 부모의 결혼 질	부의 결혼만족 *	.129	(-.004)	.018	(.177 **)	.134 *	(.049)	-.090	(.004)
		모의 결혼만족 *	.013	(.056)	.037	(-.170 *)	.043	(.066)	.067	(-.001)
	(2) 가족의 사회	부의 교육수준	.194 **	(.094 *)	-.117	(-.071)	.219 **	(.014)	-.058	(-.118)
		모의 교육수준	-.074	(.164)	.089	(-.057)	-.122	(.222 **)	.046	(.028)
	(3) 부모-자녀 관계	부와의 관계	.010	(.011)	-.026	(.099)	.013	(-.158 **)	.077	(.004)
		모와의 관계	.063	(.120 *)	.050	(-.066)	.019	(.151 *)	-.027	(-.091)
2. 개인	(1) 신체매력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215 **	(.020)	-.102	(-.137 *)	.279 ***	(.108)	-.109	(-.054)
		본인의 신체매력	.030	(.042)	.010	(.044)	-.036	(.013)	-.016	(.076)
		파트너의 신체매력(지각)	.291 ***	(.273 *)	-.145 **	(-.181 ***)	.260 ***	(.156 ***)	-.184 ***	(-.108 *)
	(2) 건강	신체건강(일반)	-.032	(-.048)	-.010	(.037)	.002	(-.027)	-.033	(.007)
		정신건강(일반)	.043	(.017)	-.023	(-.142 *)	.032	(-.042)	.022	(.030)
		우울	-.041	(-.062)	-.014	(.065)	-.009	(.061)	-.018	(-.034)
		충동성	-.030	(.083)	.127 *	(-.032)	-.107 *	(-.020)	.106	(-.049)
		자기존중(능력)	.058	(.083)	-.026	(-.004)	.044	(.056)	.006	(-.095)
		자기존중(평가)	.066	(.076)	-.017	(.030)	.063	(.144 *)	-.065	(-.085)
	(3) 결혼에 대한 기대	결혼만족의 기대	.105	(-.032)	-.096	(-.137)	.120 *	(-.105)	-.107	(.071)
		결혼성공의 기대	.169 **	(.207 *)	-.106	(.133 *)	.048	(.208 *)	-.032	(-.089)
	(1) 관계망의 결혼지	부모의 결혼찬성 *	.100	(-.124 *)	-.157 **	(-.030)	.088	(-.011)	-.032	(.001)
		파트너 부모의 결혼찬성 *	-.140 *	(-.065)	.154 **	(.170 **)	-.011	(-.085)	.150 **	(-.043)
		친구들의 결혼찬성	.214 ***	(.210 **)	-.207 ***	(-.290 ***)	.150 **	(.300 *)	-.251 ***	(-.190 *)
		파트너의 부에 대한 호감	.151 **	(.175 **)	-.036	(-.070)	.085	(.063)	.043	(-.043)
		파트너의 모에 대한 호감	.128 *	(.039)	-.084	(-.112)	.183 **	(.046)	-.159 **	(.034)
		결혼연령	-.070	(-.071)	.027	(-.017)	.009	(.009)	.121 *	(.059)
3. 사회	관계망	교육수준	.219 ***	(.356 ***)	-.070	(-.096)	.168 **	(.217 *)	-.165 **	(-.123 *)

〈표 3. 계속〉

잠재변인들	지표변인들	관계질(β계수)							
		데이트 만족1)		데이트 지속		결혼만족		결혼지속	
(1) 혼전관계의 일반적 가까움	데이트 기간	.019	(.053)	.008	(-.074)	.038	(.025)	-.034	(.010)
	데이트 빈도	-.091 *	(-.084 *)	-.088	(-.078)	.148 **	(.101)	-.038	(-.033)
	관계에 대한 관심, 노력	-.080 *	(-.120 *)	.156 **	(.142 **)	-.014	(-.089)	.058	(.013)
	신체적 가까움	.012	(.021)	-.019	(-.015)	-.025	(-.069)	-.032	(.096)
	등거여부	-.054	(-.095 *)	-.023	(-.001)	.079	(.026)	-.010	(-.053)
	혼전임신여부	-.078	(.027)	-.007	(-.052)	.031	(.024)	-.022	(.104)
	관계향상의사소통(자기) *	.000	(.129 *)	-.023	(-.026)	-.010	(-.070)	.091	(-.048)
	관계손상의사소통(자기) *	-.087	(.033)	.065	(-.091)	.061	(.039)	-.004	(.001)
	갈등시의 긍정적 의사소통(파트너)	-.135 *	(.005)	.069	(.025)	.074	(-.004)	-.148	(.064)
	갈등시의 부정적 의사소통(자기)	-.102 *	(.026)	.122	(.150 *)	-.078	(-.061)	.098	(.086)
(2) 의사소통	갈등시의 부정적 의사소통(파트너)	.100 *	(-.085)	-.062	(-.128 *)	.041	(.011)	-.070	(-.001)
	긍정적 행동의 발생	.011	(.049)	.050	(.118)	.004	(.023)	.066	(-.020)
	긍정적 정서의 발생	.047	(.100)	-.123	(.160 *)	-.044	(-.002)	.041	(-.047)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비율(자기)	-.015	(-.044)	-.104	(.009)	.011	(.079)	.051	(-.127)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비율(파트너)	-.040	(-.061)	.027	(.030)	-.041	(-.123)	.083	(.110)
	갈등의 협력적 건설적 해결	-.039	(-.017)	.034	(.044)	.042	(-.011)	.019	(-.033)
	갈등의 표현	.145 ***	(.002)	.016	(.061)	.028	(.079)	.048	(-.089)
	갈등의 해결과 회피	.008	(.070)	.107	(.086)	-.154 **	(.019)	.107	(-.034)
	요구와 철수 패턴	.061	(-.012)	-.144 *	(-.010)	.108 *	(-.117)	-.041	(-.019)
	부정적 상호성(자기·파트너)	-.050	(.052)	.045	(-.008)	.060	(.030)	-.122 *	(.043)
(3) 행동과 정서의 긍정성 부정성	갈등시의 정신적 고통	.053	(.086)	.009	(-.048)	-.024	(-.049)	-.030	(.062)
	갈등의 불쾌감	-.044	(-.124 *)	-.018	(.061)	-.006	(.035)	-.028	(-.008)
	공동흥분	-.037	(-.023)	.143 *	(-.066)	-.094	(-.006)	.126 *	(-.032)
	유사성의 지각과 공동활동	.063	(.052)	-.088	(.000)	.071	(.110 *)	-.056	(-.019)
	유사성지각(도덕)	.082	(.051)	-.082	(-.171 **)	.040	(.169 *)	-.088	(-.128)
	의견일치	.183 ***	(.062)	.012	(-.107)	.041	(-.058)	-.068	(.085)
	공동활동	.210 **	(.006)	-.080	(.085)	-.004	(.178 *)	.061	(-.100)
	관계의 조화성지각	.063	(-.030)	-.143 *	(-.047)	.056	(.046)	-.038	(.031)
	혼전관계의 보수	.181 ***	(.118 *)	-.134 *	(.044)	.058	(-.023)	-.008	(-.016)
	일반적지각	-.005	(-.093 *)	.012	(.200 ***)	-.055	(-.093)	.052	(.025)
(4) 갈등해결패턴들	대안관계의 질	.006	(.031)	.004	(.042)	-.001	(-.053)	.052	(.070)
	투자	-.035	(.080)	-.072	(-.137 *)	.091	(-.001)	-.027	(-.014)
	혼전관계의 만족					.376 ***	(.273 ***)	-.044	(-.113)
	혼전관계의 지속의사					.003	(.014)	.300 ***	(.078)
	혼전관계의 만족과 지속의사								
	혼전관계의 만족								
	혼전관계의 지속의사								
	혼전관계의 만족과 지속의사								
	혼전관계의 만족								
	혼전관계의 지속의사								
	혼전관계의 만족과 지속의사								
(5) 유사성의 지각과 공동활동	유사성지각(교육·능력)	.063	(.052)	-.088	(.000)	.071	(.110 *)	-.056	(-.019)
	유사성지각(도덕)	.082	(.051)	-.082	(-.171 **)	.040	(.169 *)	-.088	(-.128)
	의견일치	.183 ***	(.062)	.012	(-.107)	.041	(-.058)	-.068	(.085)
	공동활동	.210 **	(.006)	-.080	(.085)	-.004	(.178 *)	.061	(-.100)
	관계의 조화성지각	.063	(-.030)	-.143 *	(-.047)	.056	(.046)	-.038	(.031)
	혼전관계의 보수	.181 ***	(.118 *)	-.134 *	(.044)	.058	(-.023)	-.008	(-.016)
	일반적지각	-.005	(-.093 *)	.012	(.200 ***)	-.055	(-.093)	.052	(.025)
	(사회교환변인들)	.006	(.031)	.004	(.042)	-.001	(-.053)	.052	(.070)
	투자	-.035	(.080)	-.072	(-.137 *)	.091	(-.001)	-.027	(-.014)
	혼전관계의 만족					.376 ***	(.273 ***)	-.044	(-.113)
	혼전관계의 지속의사					.003	(.014)	.300 ***	(.078)

1) 괄호 안의 수치는 여자임.

* $p < .05$, ** $p < .01$ 및 *** $p < .001$.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의 숫자가 결혼 지속의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들의 숫자보다 더 컸다. 즉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변인들은 모두 14개인 반면에, 결혼 지속의사를 예측하는 변인들은 모두 9개이었다. 또한 예측변인들의 숫자는 성별에 따라 차이있었다. 즉, 남자들의 결혼질은 모두 21개 변인들에 의해 예측된 반면에, 여자들의 결혼질은 모두 9

개의 변인들에 의해 예측되었다.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남자들의 변인들은 모두 13개이었으며, 예측력의 순위는 혼전관계 만족($\beta=.376$), 파트너의 신체매력의 지각($\beta=.260$), 부의 교육수준($\beta=.219$), 파트너의 모에 대한 호감($\beta=.183$), 교육수준($\beta=.168$) 등이었다.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여자들의 변인들은 모두 9개이었으며, 예측력의 순위는 친구들의 결혼찬성($\beta=.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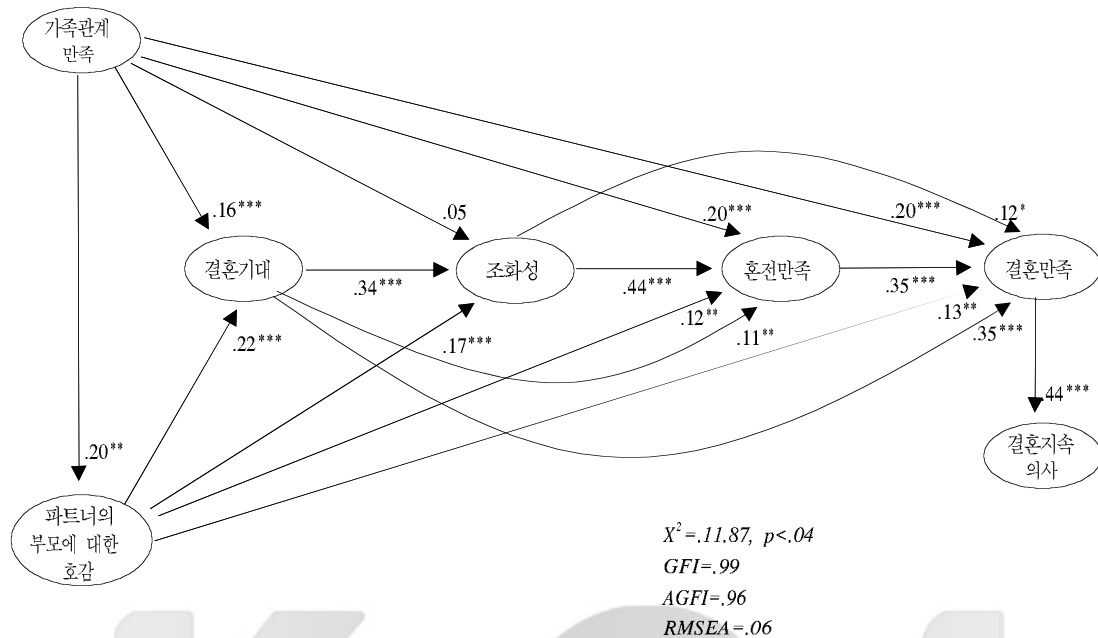


그림 2. 결혼만족 모형(남자) : 표준화된 계수들($N=427$)

혼전관계 만족($\beta=.273$), 모의 교육수준($\beta=.222$), 교육수준($\beta=.217$), 공동 활동($\beta=.178$) 등이었다.

결혼 지속의사를 예측하는 남자들의 변인들은 모두 9개이었으며, 예측력의 순위는 혼전관계 지속의사($\beta=.300$), 친구들의 결혼찬성($\beta=.251$), 파트너의 신체매력지각($\beta=.184$), 교육수준($\beta=.165$), 파트너의 모에 대한 호감($\beta=.159$) 등이었다. 결혼지속의사를 예측하는 여자들의 변인은 3개 뿐이었으며, 이것들은 친구들의 결혼찬성($\beta=.190$), 교육수준($\beta=.123$) 및 파트너의 신체매력지각($\beta=.108$)이었다.

결혼질을 예측하는 모형의 검증

본연구의 두 번째 주요 검증인 결혼질을 예측하는 수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Holman(2001)의 원모형과 비교해서 검증하기 위해, 결혼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지표변인들을 중심으로 자료분석이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AMOS 5.0 for Windows와 SPSS 10.0 for Windows로 실시되었다.

결혼만족에 관한 Holman(2001)의 모형은 원가족 사회관계망, 개인특징 및 상호작용과정의 4개의 혼전변인

들을 결혼만족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본연구의 모형은 이 모형에다가 혼전관계질(특히, 혼전관계의 만족)을 추가시켰다. 이 두 모형의 상대적 적절성의 대체적 비교를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이 각 변인의 대표적 지표변인들(즉, 결혼만족과 상관이 가장 높은 변인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에서, 4개의 변인에 의한 예측의 변량은 남녀 각각에 대해 $R^2=.27$ 과 .22로 나타났으며, 5개의 변인에 의한 예측의 변량은 남녀 각각에 대해 $R^2=.34$ 와 .22로 나타나서, 남녀 각각이 7%와 8%의 예측변량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본연구의 모형이 그의 모형보다 더 좋은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그의 모형과 본연구의 모형의 적절성을 비교하기 위해 3개의 경로모형들을 설정하고서, 모형들을 비교했다. 우선적으로, Holman(2001)의 모형에 따라 가족관계만족, 파트너의 부모에 대한 호감, 결혼 기대 및 조화성이 결혼만족에 연결되는 모형을 남녀 각각에 대해 적합도를 검증했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 각각에 대해 잔차(RMSEA)가 각각 .25와 .19로 나타나서 이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부족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모형에다가 결혼 지속의사의 변인을 추가시킨 모형을 검증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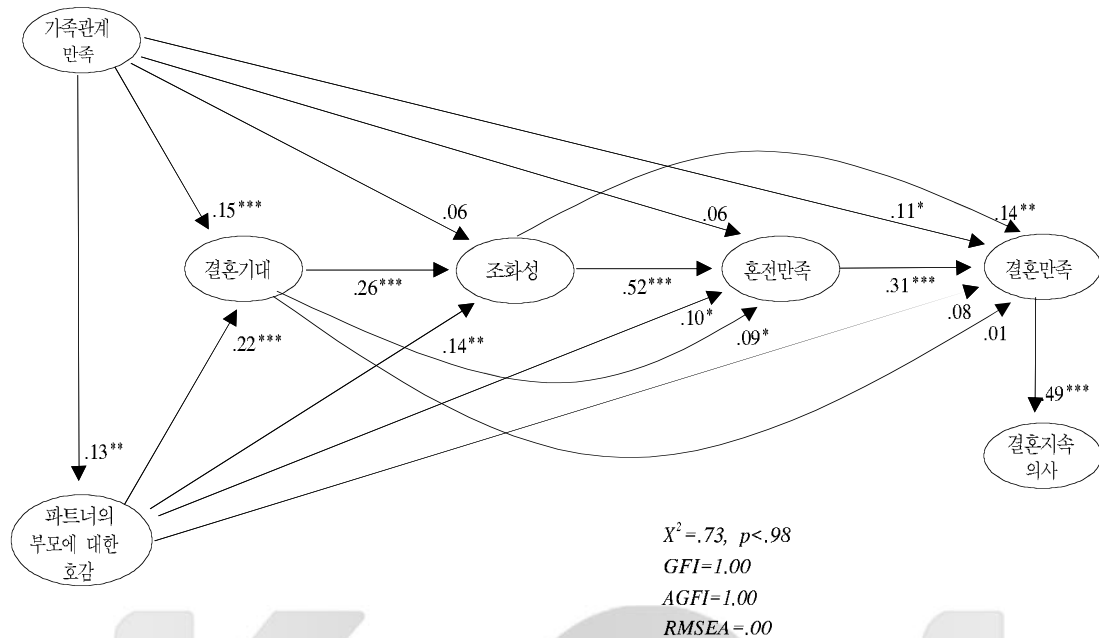


그림 3. 결혼만족 모형(여자) : 표준화된 계수들 (N=427)

데, 모형의 적합도지수들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지수들인 GFI와 AGFI는 모두 .95이상으로 나타났고, 잔차(RMSEA)는 남녀 각각에 대해 .06과 .0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모형, 즉 혼전관계의 만족과 결혼 지속의사를 추가시킨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이것에 대한 검증결과는 두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 높은 적합도지수를 보였으며 그림 2와 3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연구의 가정이 지지되었다.

상호작용과정 변인들의 분석

혼전 남녀쌍이나 부부의 상호작용과정들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의사소통변인(예; Holman, 2001)과 갈등변인(예; Gottman, 1979)에 초점을 두어 왔다. 본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호작용과정변인들을 측정했으며, 결혼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이 조화성이라는 것을 나타냈다(전체 참가자들에 대해 $r=.38$ 이었음). 그러나 상호작용과정변인들 중에서, 어느 변인이 관계만족을 더 잘 예측하는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연구는 임의적으로 분류된 혼전 상호작용과정변인들 중에서 결혼만족과 상관이 높

은 변인들을 선정해서 단계적 위계분석을 실시했다.

부부만족에 관련된 상호작용과정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조화성, 유사성 및 공동 활동이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의사소통과 긍정적 행동의 변인들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에서, 부부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조화성($R^2=.145$), 유사성(R^2 의 증가=.036) 및 공동 활동(R^2 의 증가=.025)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여자들에서, 부부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공동 활동($R^2=.138$), 유사성(R^2 의 증가=.063) 및 조화성(R^2 의 증가=.015)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남자들의 결혼만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상호작용과정변인은 조화성인 반면에, 여자들의 결혼만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상호작용과정변인은 공동 활동이었다.

논 의

본연구는 결혼질, 즉 결혼 만족과 지속의사에 관련된 5종류의 변인들을 측정했고 결혼질과의 상관들을 계산했다. Holman(2001)의 모형과 본연구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에서, 후자의 모형이 전자의 모형보다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능력이 더 우수했다. 이러한 결과는 혼전관계의 질이 추가됨으로써 결혼만족의 예측력이 증가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결혼만족은 Holman(2001)의 모형처럼 혼전관계 만족을 제외한 혼전변인들보다 혼전관계만족이나 혼전관계질을 포함한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그 예측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혼전변인들이 결혼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의 의문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혼전의 사회관계망(예, 친구들)의 결혼지지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그 이유는 혼전의 결혼지지에 대한 기억, 혼전의 결혼지지의 현재의 지속, 혼전의 결혼 지지가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준 것 등의 과정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가장 단순한 이유는 현재의 결혼질이 과거의 결혼질의 지속 결과로 보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가정과 매우 합치되는 것이 아마 본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일 것이다. 즉, 본연구의 모형은 혼전관계의 질을 포함시킴으로써, 혼전의 여러 변인들이 혼전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모두 결혼 후의 결혼질을 예측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혼전관계의 질과 결혼질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혼전의 상호작용과정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은 조화성, 유사성 및 공동활동의 변인들이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의사소통과 긍정적 행동의 변인들이 예측에서 제외되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래의 연구결과들(예; Holman, 2001; 김영희, 1999)에서 의사소통변인이 결혼만족을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결과와 불일치하고 있다. 또한 상호작용변인들의 결혼만족에 대한 예측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있다는 본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상호작용과정 변인들이 결혼질의 예측에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앞으로 종래에 많이 연구되어 왔던 의사소통, 갈등패턴 등을 넘어서 다양한 상호작용변인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결혼질을 예측하는 5종류의 변인들은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보다 결혼 지속의사를 더 약하게 예측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상관계수들과 아울러 표준화된 단순 회귀분석에서도 나타났다. 결혼질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회귀분석에서, 결혼 만족은 14개의 변인들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었지만, 결혼 유지의사는 9개 변인에 의해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만족이 혼전의 여러 변인들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예측될 수 있지만, 결혼 지속의사는 혼후나 현재의 변인들(예; 취업, 사회규범 등)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몰입(commitment)이나 지속의사는 결혼만족과는 다른 변인들에 의해 예측될 것이며, 결혼만족과 결혼몰입의 관계를 더 정교화시키는 변인들이나 모형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결혼만족과 결혼몰입의 모형을 구분지으면서,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있는 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본연구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족과 지속의사를 예측하는 변인들은 남자에 대해 각각 13개와 9개이었던 반면에, 여자에 대해 각각 9개와 3개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자들의 결혼질이 혼전변인들에 의해 남자들보다 덜 예측되고, 여자들의 결혼질의 예측을 위해서 잠재적인 새로운 변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변인들의 평균치의 측면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상호작용의 변인들과 아울러 결혼질의 변인들에서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들, 특히 결혼만족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들과 일치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결과들은 여자들의 결혼결과와 남자들의 결혼질이 상이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것은 본연구에서 결혼질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다중 회귀분석에서도 증명되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결혼질이 상이하게 영향받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결혼질에 대한 모형에 있어서도 성별의 요인에 따른 차별화된 모형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끝으로, 본연구는 혼전변인들을 회고적으로 평가했으며, 이것은 기억의 곤란이나 왜곡,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의 반응왜곡 등과 같은 변인측정의 오류나 타당성의 문제를 피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근의 이 분야의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종단연구 설계의 사용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여러 혼전변인들의 검토를 위해서는 가능성있는 다수의 혼전변인들을 고려하고 이들 변인을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횡단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횡단연구에서 결혼질을 잘 예측하는 변인들이 선정되고, 이것들을 종단연구설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연구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5.
- 이종한, 이윤희 (2000). 이혼제도와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5(2), 59-83.
- 이호신 (2000). 결혼생활 만족에 관련된 부부의 상호작용 변인들.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03). 2002년 이혼통계 결과. 통계청.
- 홍대식 (1998).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Adams, C. R. (1946). The prediction of adjustment in marriag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 185-193.
- Amato, P. R. (1994). Father-child relations, Mother-child relations, and offspr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031-1042.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43-58.
- Andersen, P. A. (1993). Cognitive schemata in personal relationships. In S. Duck (ED.),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pp. 1-29).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Antill, J. K. (1983). Sex role complementarity versus similarity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45-155.
- Baucom, D. H. (1987). Attributions in distressed relations : How can we explain them? In S. Duck & D. Perlman(Eds.), *Intimate relationships : Development, dynamics, and deterioration* (pp. 177-206). Newbury Park, CA : Sage.
- Bentler, P. M., & Newcomb, M. D. (1978). Longitudinal study of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053-1070.
- Birtchnell, J., & Kennard, J. (1984). Early and current factors associated with poor quality marriages. *Social Psychiatry*, 19, 31-40.
- Booth, A., & Johnson, D. R. (1988). Premarital cohabitation and marital success. *Journal of Family Issues*, 9, 225-272.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 Burr, W. R. (1973).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 Wiley.
- Byrne, D., & Clore, G. L. (1970). A reinforcement model of evaluative processes. *Personality : An International Journal*, 1, 103-128.
- Cate, R. M., Huston, T. L., & Nesselroade, J. R. (1986). Premarital relationships : Toward the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 pathways to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3-22.
- Cate, R. M., & Lloyd, S. A. (1992). *Courtship*.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Inc.
- Duck, S. (ED.). (1993). *Social context and relationships*. Newbury Park, CA : Sage.
- Filsinger, E. E., & Thoma, S. J. (1988). Behavioral antecedents of relationship stability and adjustment :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85-795.
- Fowers, B. J., & Olson, D. H. (1986). Predicting marital success with PREPARE : A Predictive validity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 403-413.
- Gottman, J. M. (1982). Temporal form : Toward a new language for describing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943-962.
- Gottman, J. M. (1990). How marriages change. In G. R. Patterson(ED.),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family interaction* (pp. 75-101). Hillsdale, NJ : Erlbaum.
- Gottman, J. M.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 A longitudinal view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15.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Shaver, P. R.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 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1-22.
- Hill, R. (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 Holman, T. B. (2001). *Premarital prediction of marital quality or breakup*. New York : Kluwer Academic/Plenum.
- Holman, T. B., Larson, J. H., & Harmer, S. L. (1994). The develop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new premarital assessment instrument :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3, 46-52.
- Holman, T. B., & Li, B. D. (1997). Premarital factors influencing perceived readiness for marriage. *Journal of Family Issues*, 18, 124-144.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 A review of theory, methods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1, 3-34.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Wiley.
- Kelley, C., Huston, T. L., & Cate, R. M. (1985). Premarital relationship correlates of the erosion of 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 2, 167-178.
- Kelly, E. L., & Conley, J. J.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7-40.
- Klein, R., & Milardo, R. M. (1993). Third-party influence on the management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S. Duck(Ed.), *Social context and relationships* (pp. 55-77).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Kurdek, L. A. (1991). Marital stability and changes in marital quality in newlywed couples : A test of the contextual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27-48.
- Larsen, A. S., & Olson, D. H. (1989).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using PREPARE : A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 3, 311-322.
- Larson, J. H., & Holman, T. B. (1994). Premarital prediction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 An applied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43, 228-237.
- Levinger, G. (1965). Marital cohesiveness and dissolution :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 19-28.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pp. 268-294). New York : Free Press.
- Lott, A. J., & Lott, B. E. (1974). The role of reward in the formation of positive interpersonal attitudes. In T. Huston(Ed.), *Foundation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171-189. New York : Academic Press.
- Markman, H. J. (1979). The application of a behavioral model of marriage in predic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uples planning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743-749.
- Markman, H. J. (1981). Prediction of marital distress : A 5-year follow 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760-762.
- Markman, H. J., Duncan, S. S., Storaasli, R. D., & Howes, P. W. (1987). The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marital distress :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Hahlweg, K. & Goldstein, M. (1987). *Understanding major mental disorder : The contribution of family interaction research* (pp. 266-289). New York : Family Process Inc.
- Marks, S. R. (1986). *three corners*.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2). Family adaptation to crises. In H. I. McCubbin, A. E. Cauble, & J. M. Patterson(Eds.),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p. 26-47). Springfield.

- IL : Charles C Thomas.
- Mittlemann, B. (1956). Analysis of reciprocal neurotic patterns in family relationships. In V. W. Eisenstein (Ed.), *Neurotic interaction in marriage* (pp. 81-100). New York : Basic Books.
- Newcomb, M. D., & Bentler, P. M. (1981). Marital breakdown. In S. Duck & R. Gilmour(Eds.), *Personal relationships : Personal relationship in disorder*(pp. 57-94).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Rusbult, C. E.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Shaver, P.,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 The integration of three behavioral systems. In R. J. Sternberg & M. L.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pp. 68-99).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Smith, D. A., Vivian, D., & O'Leary, K. D. (1991). The misnomer proposition : A critical reappraisal of the longitudinal status of "negativity" in marital communication. *Behavioral Assessment*, 13, 7-24.
- Sprecher, S., & Feilmee, D. (1992). The influence of parents and friends on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omantic relationships : A three-wave longitudinal investig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888-900.
- Stuart, R. B. (1969). Operant-interpersonal treatment for marital discor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675-682.
- Terman, L. M., & Oden, M. H. (1947). *Genetic studies of genius : Vol. 4. The gifted child grows up*.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 Wiley.
- Wamboldt, F. S., & Reiss, D. (1989). Defining a family heritage and a new relationship identity : Two central tasks in the making of a marriage. *Family Process*, 28, 317-335.
- Wilcoxon, S. A., & Hovestadt, A. J. (1985). Perceived similarity in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dyadic adjustment : A comparison across years of marriage. *Family Therapy*, 12, 165-174.
- Wills, T. A., Weiss, R. L., & Patterson. G. R. (1974). A behavior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02-811.
- Whyte, M. K. (1990). *Dating, mating, and marriage*. New York : Walter de Gruyter.

Premarital Variables Related to Marital Quality and Commitment

Daeshik Ho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 test the adequacy of modified Holman's(2001) model of marital quality, 427 couples(854 persons) were used. Premarital family of orig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al network, and interaction process variables were rated through retrospective method, and present marital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were rated. Specifically, various interaction variables like the harmony of relationship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ed superiority of modified model.

In addition, women rated more negatively interaction variables and premarital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than men. Most variables of family of orig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al network and interaction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and these variables showed lower correlations with marital continuance intention than marital satisfaction. Future study problems related to interaction variables were discussed.

Key words : marital quality,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mmitment, premarital variables

원고접수 : 2005년 3월 14일
심사통과 : 2005년 4월 14일